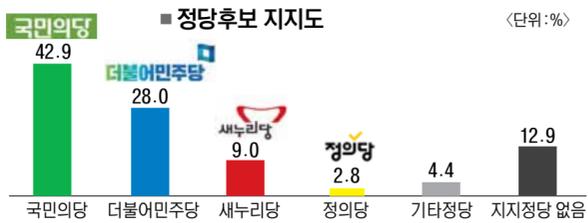


총선서 지지할 정당 ... 국민의당 43%·더민주 28%

호남민심 대변하는 정당 국민의당 49%...더민주의 2배
 현역의원에 투표 않았다 51.5%...53%가 야권연대 필요



선택 4·13
호남민심 대해부

광주일보-리얼미터

광주·전남 1014명 여론조사

4월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은 40%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20% 후반대의 지지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일보가 설 연휴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 지난 2~3일 이틀 동안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총선에서 지지할 정당으로 42.9%가 국민의당을 꼽았다.

반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28%에 그쳐, 국민의당에 비해 무려 14.9%포인트나 뒤처진 것으로 집계됐다. 새누리당은 9%, 정의당은 2.8%의 지지율을 보였다.

광주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은 41.4%, 더민주 지지율은 29.7%로 11.7%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전남에서는 국민의당이 44%, 더민주가 26.8%로 무려 17.2%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는 국민의당 창당 이전인 지난해 12월 29~30일 광주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 광주·전남지역 유권자 1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안철수 신당 41.9%, 더민주 29.4%)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승만 국부 발원 등 각종 악재로 인한 전국적 지지를 하락세에도 광주·전남지역에서 국민의당이 견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더민주에 대한 민심 이반의 폭이 그만큼 넓고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호남 신당 세력과의 합당과 창당 등에 따른 컨벤션 효과도 영향을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민주의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외부 인사 영입 등으로 분위기가 반전에 나섰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국보위 참여 논란 등이 겹치면서 돌아선 지역 민심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호남 민심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응답자의 과반수에 가까운 48.9%가 국민의당을 선택한 반면, 더민주는 26.1%에 그쳤다.

국민의당과 호남 신당 세력과의 통합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2.2%가 잘했다는 평가를 내렸고 더민주의 제1야당 역할에 대해서는 53.9%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33.3%로 1위를 차지했고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21.5%, 박원순 서울시장이 17.8%,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7.9%로 집계됐다.

4월 총선에서의 야권연대에 대해 52.8%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필요없다는 응답도 30.5%나 됐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지역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물갈이 여론도 거셌다. 전체 응답자의 51.5%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다문화가족 ♥ 설 인사 설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아시아국가 모두의 명절이다. 4일 오전 광주시 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2016 설맞이 더불어 한마당'에 참석한 다문화 여성들이 형형색색의 전통의상을 입고 손가락으로 하트 모양을 그리며 새해 인사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 연휴 민족 대이동 시작 ... 귀성길 서울→광주 4시간 20분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8일)을 맞아 대이동이 시작됐다. 올 설 연휴기간(6~10일) 전국에서 민족 대이동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3645만명으로 추산된다.

설 연휴가 닷새로 긴 편이어서 고속도로 혼잡은 예년보다 덜할 것으로 분석되지만, 도로망이 집중된 수도권·충청권의 고속도로는 일정부분 혼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날씨	5(금)	6(토)	7(일)	8(월)	9(화)	10(수)
구름 많음	맑음					

국토교통부는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7일 오전, 귀경은 설날인 8일 오후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분석했다.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승용차 기준으

로 서울→광주 4시간20분, 서서울→목포 4시간50분, 귀경길의 경우 광주→서울 5시간 40분, 목포→서서울 7시간으로 예상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행복한 설연휴 보내세요
 8~10일자 신문 쉽니다

설 특집 28면 발행
 4·13 총선 호남민심 대해부 ▶1~7면
 우치동물원 기린 시집간다 ▶10면
 설 연휴 100배 즐기기 ▶11~19면
 KIA 92년 원승이들 시즌 포부 ▶24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승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원샷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새누리, 선거구 획정안 17~18일 처리 제안 거부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 일만이다.

특별법은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 선제적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

속한 법 통과를 요구해왔다. 특별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는 17~18일 2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무분별한 전기사용' 당신의 안전을 갉아먹습니다'

콘센트에는 적정 용량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쓰지않는 전기코드는 뽑아두는 습관을...

매월 4일은 전기안전점검의 날

생활 속의 전기안전요령 이렇게 하면 됩니다

- ▶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용량에 맞게 사용합니다.
- ▶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합니다.
- ▶ 문어발식 전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 ▶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습니다.
- ▶ 비 올 때 가로등, 신호등, 옥외공고물 등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 ▶ 건설공사를 하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는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전기안전 119」 ☎1588-7500
 NAVER blog.naver.com/kescomiri

전기안전 선도기관, 행복한 고객, 믿어주는 일터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www.kesco.or.kr